

한-쿠웨이트 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

- 한-쿠웨이트 간 항공회담 개최... 운수권 증대 등 합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(6.27~6.28)*하여,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와 항공사 간 공동운항 협정(코드셰어) 허용 등을 합의하였다.

* (참석자)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, 쿠웨이트 민간항공청 항공교통과장

-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국제공항 위탁운영사업,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등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국가로,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항공 운송 분야로 확대하였다.

-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우선,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기존 왕복 주 2회에서 주 5회로 증대하면서 부산-쿠웨이트 노선은 주 2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편성이 용이해져 '86년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.

- 또한, 한-쿠웨이트 노선에서 항공사 간 공동운항협정(코드셰어)을 맺을 수 있게 되어, 좌석 판매 및 실제 운항에 항공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아울러, 2개 이상 국적사의 취항이 가능해졌으며(기존 한, 쿠 각 1개 제한), 항공협정에 안전·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“이번 합의가 양국 간 직항 항공편 개설을 촉진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인과 교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 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
참고**한-쿠웨이트 항공협력 현황****□ 항공협정 체결현황**

- '81.1 서울에서 체결, '82.1 발효

□ 직항편 운항현황

- 현재는 양측 항공사 모두 비운항*

* 과거, 대한항공은 '78.7~'85.12 주 1회, 쿠웨이트항공은 '82.12~'86.3 운항

□ 항공회담 결과

구분	기존	변경
운수권	여객 또는 화물 주 2회	여객 또는 화물 주 5회 (단 부산-쿠웨이트는 추가 주 2회 운항 가능)
	* 양국 간 노선에서, 각 국의 항공사가 다닐 수 있는 주당 왕복 최대 운항횟수	
공동 운항협정 (코드셰어)	불가(근거 無)	가능(근거 마련)
	* 항공사 간 항공권 판매 및 운항에 관한 상호 협력(예시: 인천-파리 노선을 실제로는 에어프랑스가 운항하나, 대한항공이 자사의 편명으로 해당 좌석을 일부 판매)	
각 국의 지정항공사 개수	1개社만 지정 가능	2개 이상 社 지정 가능
	* 양국 간 노선에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항공사	
안전·보안 규정	부재	신설
	* 양국 간 항공기, 승무원, 승객 등에 관한 안전, 보안 협력 근거	